



보호구의 지급·착용 실태조사 및 효율적 보호구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연구책임자 / 김강윤

연구기간 / 2008.07-2008.12

등록번호 / 보건분야-연구자료 연구원 2008

본 연구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의 지급·착용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구에 대한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국내·외 보호구 점검 및 관리기준 조사를 통해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의무 관계 조사 포함) 국내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분진, 유기용제 등의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가 제대로 된 성능이 유지되고 착용률을 향상시키면서 보호구 관리의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 보호구 관리방안을 찾고자 수행하였다.

건강보호구의 지급·착용 실태조사 및 사업장 내에서의 보호구별 점검 등 관리실태조사(총 305개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산업보건업무담당자 포함) 304명, 근로자 1,12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를 통한 외국의 보호구 점검 및 관리기준 조사,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호구 착

용 확보 방안 조사, 유해 작업관련 보호구의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건강보호구에 대한 선정, 지급, 관리 및 교육 관련 설문조사 결과, 선정 주체는 주로 보건관리담당자였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품평회를 통한 선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업보건전문가의 보호구 선정 자문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건강보호구의 착용률은 호흡보호구 53.52%, 청력보호구 65.74%, 눈/안면보호구 32.84%, 피부보호구 28.99%였다.

호흡보호구의 경우 방독마스크를 써야 하는 사업장에서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는 오류가 각각 54.55%, 12.75%로 조사되었다. 보호구의 관리측면에서 보건관리자 지정 여부, 보관함 지원 여

부, 내부 보호구 착용 규제방침 여부, 보호구 관련 교육 실시 여부 등에 따라 보호구 착용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구 관련 교육의 실시 여부를 보건관리담당자의 답변과 근로자의 교육 수료 여부를 비교하여 알아본 결과, 보건관리담당자는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교육 수료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44%로 나타나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보건관리담당자와 근로자 간의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의 보호구 점검 및 관리 조사에서 보호구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관련 법규 조항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개별 보호구에 따른 세부조항들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국내의 법규에는 세부조항이 따로 없어 사업장에서 보건관리담당자나 근로자들이 보호구를 선정, 지급, 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

는데 따른 사업장 간의 차이와 오류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유해 작업 관련 보호구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보호구 착용률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법규체제에서 보호구 관련 세부조항을 마련하고, 보건관리담당자에 대한 보호구 관련 교육의 실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장의 건강보호구와 관련된 복잡한 기술직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기술적 측면에서 보호구 지급 및 착용률 향상을 위한 사업주 전략 방안 및 보호구 착용에 대한 근로자 순응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 보호구별 관리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정책적 측면에서는 보호구 착용률 향상을 통하여 근로자의 직업병 감소를 위한 정책 수립 및 보호구별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